

# 연고없는 아이들 학대 받고 짓밟혀도 호소할 곳 없다



〈상〉 반복되는 고통

지난 2007년 광주 YWCA 산하 S보육 시설(고아원)에서 물고문 등 끔찍한 아동 학대가 자행됐다. 고아(보호대상아동) 소녀들을 돌봐온 해당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발을 잡고 들어 올려 물을 채운 고무 대야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하는 등 물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보육시설 지하1층부터 옥상까지 오리걸음 등을 하도록 하는 학대 행위는 일상이었다. 이들의 학대행위는 보다 못한 내부직원

정신병원 보내고 물고문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시달려 광주·전남 2236명 시설 생활 지난해 아동학대 34건 발생 부모에 버려지고 시설서 학대 "또 잊히면 어쩌나" 한숨만

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아이들 학대를 주도한 보육시설 사무국장 등은 겨우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일부 직원은 교체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11년이 지난 2018년, 해당 보육시설은 또 다시 아동학대의 중심에 섰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고아소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신병원에 보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시민단체인 YWCA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내 학대 행위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 시설 내 학대행위도

반복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 만난 한 고아아동은 "부모나 보호자가 없다보니, 시설(고아원)에서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들 나이도 어리고 하다보니, 자신이 받는 학대 행위가 학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우리의 고통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고 했다. 3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등이 포함된 아동복지 시설에서 각각 18건과 16건 등 총 3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는 아동양육시설 13곳 529명, 그룹홈(7인 이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 27곳 157명 등 총 40곳에서 686명의 보호대상아동(고아)이 머물고 있다. 전남은 아동양육시설 54곳 1058명, 그룹홈 31곳 492명 등 총 85곳 1550명에 이른다. 광주·전남에서만 125개 시설에서 2236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고아아동은 가족과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자

로, 학대행위를 당하더라도 호소할 곳이 없어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광주 YWCA 산하 S보육시설(고아원)에서 학대를 당한 고모(19)양의 사례만 봐도 이 같은 현실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양은 5살 무렵인 2004년께 해당 시설에서 허락없이 초콜릿을 먹었다는 이유로 밤새도록 구토를 반복하며 초콜릿을 강제로 먹는 학대를 당했다. 고양의 기억에 있는 첫번째 학대다. 고양은 "더 어린 시절 기억은 없다. 학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5살이 되던 해 잠도 자지 못한 채 초콜릿을 계속 먹어야 했다. 그 이후론 아직까지 초콜릿을 아예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양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또 다른 학대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눈 모양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고양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 계란을 사 삶은 뒤 새벽 남광주 시장에서 판매한 돈 등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뻔 한 것이다. 고양은 "시설 내에서

최소 5명 정도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일부 보호대상아동 시설에서는 외출금지과 용돈, 휴대전화사용 제약 등을 빌미로 고아 아동들을 학대·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종사자의 폭언 등은 일상적이라는 게 일부 시설 내 고아 아동들의 주장이다. 광주의 한 시설에서 생활중인 고아 아동은 "부담함을 떠나 내부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2주일간 외출이 금지되고, 기본적인 용돈조차 주지 않는 등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지옥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살충동이 들 때도 많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도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고아 아동은 "부모에게 버려지고, 시설에서 학대받고, 국가에 호소해도 달린 것 없더라"면서 "아마 조금 지나면(우리가 겪은 학대행위)도 잊혀지고, (시설 내)동생들이 똑같은 학대 행위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현명 기자 young@kwangju.co.kr

31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 18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이 2년여 동안 310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8명을 붙잡았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총액 100억(38)억 등 일당 1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여 동안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서 310억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와 함께 중국 현지팀장, 통장모집팀장, 홍보팀장 등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도, 사다리 게임, 탈팡이 게임 등에 돈을 걸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해킹당한 인터넷 아이디 9000여개를 사들여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했다. 또 도박행위자 회원 자료 100만개를 입수,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을 차등 관리하며 등급별로 적립금을 추가로 주는 등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펼쳐 회원들의 도박 중독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18개와 도박자금 입출금·환전용 계좌 178개를 정밀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운행 중인 고급 외제 차의 리스 보증금 2136만원을 몰수보전 신청했고, 범죄수익금 6500만원도 압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폭행 당한 장애학생 지난해도 폭행 피해 의혹

다른 특수학교선 시퍼렇게 멍든 학생 경위 파악도 안해

광주 폭행사건 1년새 최소 4건 시교육청 관리감독 부실 지적

사회복지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일어난 광주 A특수학교에서 1년 전에도 사회복지요원에 의한 폭행 의심 사건이 있었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광주 B특수학교에서도 수개월 전 장애학생의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다쳤는데도 부상 경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부모가 반발하는 등 최근 1년 사이 광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의심 사례가 최소 4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건의 경우 학교측이 피해 학부모에게 사건 경위를 거짓으로 안내하는 등 은폐·축소한 사실(광주일보 2018년 10월 30일자 6면)이 드러난데다, 일단 폭행의심 사례에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점을 피해학생 부모, 시민단체가 문제 삼아 다음달 1일 기자회견을 연다는 점에서 광주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광주일보 취재 결과, 최근 광주장애인부모연대문제제기로 사회복지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C(16·초등부 5년)군 폭행 및 사건 은폐축소 사건이 드러난 광주 A특수학교에서 지난해에도 폭행 의심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역시 다친 학생은 C군이었던

며, 가해 의심자는 또 다른 사회복지요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부모는 "사회복지요원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학교 측 설명을 듣고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유사한 일이 자녀에게 또 발생했고 학교 측이 "이번에는 혼자 놀다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거짓으로 안내한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C군 부모가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 지난해 사건까지 털어놓게 됐다는 것이다. 최인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학교, 학부모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사건의 경우도 사회복지요원의 접촉 하에 C군이 다쳤고,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학교측이(사회복지요원과) 접촉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알면서도, 피해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이런 점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한 설명 요청에 학교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C군 폭행사건 뿐 아니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는 이날까지 모두 4건의 장애학생 폭행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이 학생의 부모는 다음달 1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생물테러 대비 훈련 30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전남대병원 주차장에서 '2018 만·관·군-경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 훈련'이 진행됐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들이 제복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3년간 475명

광주·전남에서 지난 3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유·청소년이 4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015년 73명, 2016년 54명, 지난해 45명

등 모두 172명이 가정폭력을 당했다. 전남지역 가정폭력 피해자는 연도별로 89명, 122명, 92명 등 모두 303명이었다. 피해 유·청소년들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할 때 주소지 외 취학이 원활히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하지만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 중에는 보호시설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길거리 진열 서예 작품 '슬쩍'

○·평소 서예를 좋아하던 70대 길거리 서예 진열에 놓고 판매되던 서예 작품을 주인 몰래 가져갔다 경찰서형. ○·3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74)씨는 지난달 12일 낮 12시께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B(63)씨가 서예작품 20여점 진열·판매하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1점(가로 50cm·세로 40cm)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달아났다는 것.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훗날 작품을 자신의 집 거실에 걸어놓고 감상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B씨와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당시 좋아하는 작품이 보이길래 나중에 돈을 줄 생각으로 가져갔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